



韓國圖書館史研究(一)

朴 熙 永

序 論

第一章 文字 一前史一

第二章 三國時代

第一節 高 句 麗

1) 扁 堂

2) 圖書文化

3) 典 書 客

第二節 百 濟

1) 圖書文化

2) 百濟文化와 日本文化

第三節 新 羅

1) 穢宮, 珍閣省

2) 圖書文化

第四節 渤海, 摩震

1) 文籍院

2) 禁書省

序 論

圖書館은 圖書가 있으므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圖書館의 歷史는 決코 圖書가 있기 以前으로 올라가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人間들은 그 生命과 思想의 不滅을 願하였으며 이러한 理想을 實現하고 達成하기 爲하여 圖書를 만들어 낸 것이다. 또한 圖書라는 偉대한 遺産을 永遠히 繼承하기 爲하여 圖書館의 設立을 創案하게 되었으며 圖書館을 만들게 됨으로써 人類의 理想은 完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겠다.

世界最古의 圖書館이라고 일컫고 있는 앗시리아時代 니네베의 앗술바니팔(Assur-bani-pal)의 宮殿에 있었던 王宮文庫라던가 中國 周時代의 藏室等等에서 미루어 볼때 그곳에 保管되었었다는 圖書가 오늘날 우리가 만지고 있는 그러한 形態

와 材料의 圖書가 아닐지라도 또한 그 圖書에 記錄된 文字가 오늘날 使用되고 있는 그러한 文字가 아닐지라도 文字가 있으면 圖書가 있고 圖書가 있으면 이를 保管하여 繼承할 圖書館을 만들었다는 것은 嚴然한 史實인 것이다.

人類의 文化는 文字의 創造로 부터 發芽하게 되었으며 또한 人類의 文化는 그 文字로 記錄된 圖書가 지니고 있는 偉대한 힘에 의하여 開花되므로 해서 發展하였고 繼承되어 왔던 것이다.

人類가 發明한 것들 중에서 가장 價値 있고 모든 人類發展의 힘의 根源이 되는 圖書를 保管하고 繼承하게 하는 圖書館의 存在는 人類가 이룩한 文化의 結晶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圖書生産의 必需條件인 製紙業이 發達하여 優秀한 종이를 만들어 내서 古代에 있어서도 當時隣接하고 있던 中國과 日本이 韓紙를 貴하게 여겼다. 또한 獨逸의 구텐벨그(Johann G-

utenberg)가 金屬活字印刷術을 發明하기 190年前 高麗 高宗 10年(1232年)에 이미 金屬活字의 印刷를 하였던 것이 記錄에 나타나고 있으며 三國時代부터 圖書를 管掌하는 官署가 있었던 것들의 史實은 우리나라의 圖書文化와 아울러 圖書館의 歷史를 燦爛하게 빛내 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圖書文化를 中心으로 한 우리나라 圖書館 發展을 살펴 보고자 한다.

第一章 文字 一前史一

序論에서 述한바 圖書館은 圖書가 있어야 이루어지고 圖書는 文字가 있어야만 만들어 지는 것 입에 圖書館의 歷史는 文字使用과 더불어 始作되어야 할 것이다.

素朴과 自然의 原始生活은 國家體系가 完全히 成立될때까지 人間은 繼續하여 衣食住에 必要한 하나하나를 解決하면서 發展하여 왔고 그러므로써 人類社會는 차차로 進歩된 것이다.

意思傳達 方法의 變遷을 살펴보면 文字가 없던 時代에 있어서는 動作과 實物로 傳達되었으며 言語가 發達함에 따라 言語로 傳達하였던 것이다. 口舌傳達이 손으로 하는 繪畫傳達로 進歩되고 이 繪畫文字가 다시 文字傳達로 發展된 것이다.

우리나라 古代文字에 관한 것들을 「金允經著 韓國文字及語學史」에 研究된것을 비러서 추려 본다면 1. 三皇內 文字 2. 神誌秘詞 文字 3. 王文 文字 4. 刻木 文字 5. 高句麗 文字 6. 百濟 文字 7. 鄉札 8. 渤海 文字 9. 高麗 文字等이 漢字를 除外한 固有文字가 있었다는 記錄이라고 들고 있다.

1) 三皇內 文字

抱朴子에

「黃帝東到東丘，過風山，見紫府先生，受三皇內文」이라 있다.

2) 神誌秘詞 文字

文獻備考 藝文考에

「神誌秘詞」란 書名이 있고 大東韻玉에

「神誌，檀君時人，自號仙人」이라 있고 또 「書雲觀秘記，有九變震檀之圖，朝鮮即震檀」이라 있고

龍飛御天歌의 註에

「九變圖局，檀君時人神誌所撰圖識之名，言東國歷代定都凡九變其局，並言本朝受命建都之事」라 있고

三國遺事 卷三 寶藏奉老普德移庵條 割註에

「唐書云，蓋蘇文自謂莫離支，猶中書令，又按神誌秘詞序云，蘇文大英弘序並註，則蘇文乃職名有文證，而傳云，文人蘇英弘序，未詳孰是」이라 있고 또 世祖實錄에

「世祖三年丁丑五月，諭八道觀察使曰，古朝鮮秘詞，大綱設，朝代記，誌公記，表訓天詞，三聖密記，安舍老元董仲三聖記，造謠記，動天錄，地華錄等文書，不宜藏於私處，如有藏者，許令進上，其廣諭公私及寺社」라고 있다

3) 王文 文字

柳文化語에

「王文，書文字，而如篆如符，文即受號之父」라고 있다

4) 刻木 文字

梁書의 新羅條에

「與高麗相類，無文字，刻木爲信，言語待百濟而後通焉」이라 있고 또 南史에

「新羅初無文字刻木以爲信」이라 있다

5) 高句麗 文字

三國史記 高句麗 嬰陽王十一年條에
「詔大學博士李文眞, 約古史爲新集五
卷, 國初始用文字, 時有人記事一百
卷, 名曰留記, 至是刪修」라고 있다

6) 百濟 文字

三國史記 百濟 近肖古王三十年條에
「古記云, 百濟開國以來有文字記事,
至是博士高興, 始有書記, 然高興未嘗
顯於他書, 不知其何許人也」라고 있고
또 新唐書에
「百濟有文字籍記」라고 있다

7) 鄉札

新羅 神德왕에 사람 均如大師의 傳에
「我邦之才子名公; 解吟唐什, 彼土之
鴻儒碩德莫解鄉謠, 矧復唐文, 如帝綱
交羅, 我邦易讀, 鄉札似梵書連布, 彼
土難讀」이라 있다

8) 渤海 文字

舊唐書에
「風俗與高麗及契丹同, 頗有文字及書
記」라고 있고
또 高麗史에
「唐武後時, 高句麗人大祚榮走保遼東
睿宗封爲渤海郡王, 因自號渤海國, 並
有扶餘肅慎等十餘國, 有文字禮樂」이
라 있다

9) 高麗 文字

申景濟의 訓民正音韻解 序文에
「東方 舊有俗用文字, 而其數不備, 其
形無法, 不足形一方之言, 而備一方之
用也」라고 있다

以上이 漢字以外的 固有한 文字에 關한
記錄이라 하겠으나, 固有文字 有無에 關한
問題는 여기서 論外의 일이므로 論하지
않겠으나 漢字의 使用을 살펴 본다면 百

濟 近肖古王29年 (374)에 高興을 일어 비
로스 書記가 이루어 졌다고 하는 그 때 보
다도 90年前인 百濟古爾王51年(284)에 百
濟의 博士 王仁이 論語10卷과 千字文을
日本에 가지고 가서 日本에 漢文字를 傳
하였다 하며 이것이 日本에서의 文字를
가지게된 始初라고 한다. 이史實은 日本
의 史書 日本書記에 나오며 또 增補文獻
備考 藝文考에

「古爾王51年 遣書籍于倭國 倭初無文獻
至是始從百濟得中國文字」라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이미 百濟 古
爾王51年 (284) 當時 漢字가 一般의으로
널리 使用되고 있었고 外國에 까지 이를
傳할 수 있는 程度로 學問이 進歩되고 있
었다는 것이 推測된다.

三國時代 以前에 關하여는 增補文獻備
考 藝文考에

「涵虛子曰 箕子率中國五千人入朝鮮其詩
書禮樂巫陰陽卜筮之流皆從往焉」라고 있
고

海東經史 經籍에는 和漢三才圖會에서
引用하여

「周武王封箕子於朝鮮中國之禮樂詩書醫
藥卜筮皆流于此」

라고 있으나 여러 史學家들의 研究에
依하면 箕子는 實存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如何間 百濟時代에 漢文이 通用되
었고 百濟뿐만이 아니라 高句麗 新羅等이
建國初에 이미 漢文字를 使用하였음을 분
배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三國時代 以前에
도 漢文字를 使用하였을 것으로 推測되며
또한 學問은 且置하고라도 文字를 배우기
爲하여서도 圖書가 있었을것이라고 推測
된다.

第二章 三國時代

高句麗, 百濟, 新羅의 三國時代는 新羅 高句麗, 百濟의 順으로 各各建國하였다. 三國時代의 三國은 漢나라와 地理적으로 陸海로 隣接해 있어서 漢나라의 文化가 直接 또는 間接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며 들어오는 外來文化를 固有文化에다 잘 消化하여 三國은 各各固有文字를 가지고 發展하였다. 그러므로 三國은 建國과 同時에 政治制度의 確立과 行政組織의 體系樹立을 期하였으며 政治와 行政이 平定해짐에 따라 社會의으로는 階級이 뚜렷해지고 國民이 社會生活를 營爲하게 되므로해서 經濟制度도 아울러 樹立되어갔다. 그러면서 三國은 隣接해있는 關係로 서로가 外勢의 侵攻을 막으면서 한편으로는 國土의 擴張에 努力하였다.

第一節 高句麗

1) 扁 堂

舊唐書 東夷傳 高句麗에

「俗愛書籍. 至於衙門廨叢之家. 各於街衢造大屋. 謂之扁堂. 子弟未婚之前. 晝夜於此讀書習射. 其書有五經及史記. 漢書. 范曄後漢書. 三國志. 孫盛晉春秋. 玉篇. 字統. 字林. 又有文選. 尤愛重之」라고 있고

唐書 東夷傳 高句麗에

「人喜學. 至窮里廨家. 亦相矜勉. 衙則悉構廨屋. 號扁堂. 子弟未婚者. 曹處. 誦經習射」라고 있고

北史에

「書有五經三史三國志」라고 있다.

高句麗는 建國以前부터 漢文을 使用하였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以上の 여러 文獻에 나타난 記錄으로 보아 五經을 爲始

하여 많은 圖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扁堂에 關하여 「李丙燾著 國史大觀」에 보면

「즉 後期(平壤遷都以後) 高句麗에서는 僻巷窮村에 이르기까지 文武의 學을 崇尚하여 길가에 扁堂이란 私塾을 設하고 未婚男子를 모아놓고 經典과 弓術을 가르치었다. 但 太學은 官立으로서 上流階級の 子弟를 收容하였음에 對하여 私立인 扁堂은 일반 平民層이 그네들의 子弟를 위하여 設立하였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한편 「박상만著 한국교육사 상권」에서는

「扁堂에서 修學한 青年子弟들은 그知識水準이 하로 하로 向上되어 마침내 우리나라 教育의 한 新紀元을 지은 고구려의 太學의 出現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扁堂과 太學과의 設立의 先後는 여기서 論할바가 아니다. 그러나 扁堂 그自體가 一種의 圖書館 即 公共圖書館의인 일을 한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 싶다. 扁堂을 舊唐書에서는 「誦書」하는 곳으로 되어있고 唐書에서는 「誦經」하는 곳으로 記錄되어 있는데 誦書나 誦經이나 모다 冊을 읽는다는 뜻이다. 같은 時代의 機關으로서 하나는 太學이라 하였고 비록 私立이라고는 하지만 어째서 扁堂이라고 하였는지? 扁堂도 學校라면 太學이라던가 書堂이라던가와 같이 「글」이라던가 「배운다」는 뜻의 文字를 使用하지 않고 어째서 「扁」이란 文字를 使用하였는지가 問題點이라 하겠다. 「扁」이란 字의 뜻은 문단속, 門의 빗장 등의 뜻을 가진 漢字로서

扁牘 (門이라는 뜻)

扁禁 (禁中, 宮中)

扁關 (門을 잠그는 빗장)

扁扁 (分明하게 觀察하는 모양)

扁鑄 (門단속, 잠을쇠로 잠근다)

扁網 (함정으로 動物을 잡는것)

扁鍵 (門단속)

扁戶 (문을 잠근다)

扁銷 (門단속, 잠을쇠)

等等

으로 使用된다. 「諸橋徹次著 大漢和辭典」에는 扁堂을 「門闕을 한 집」이라고 되어 있고 出處는 唐書를 引用하여 있다. 當時는 圖書가 極히 貴했을 것이며 누구나가 가질수 없는 것이므로 貴한 圖書를 保管하고 읽히는 곳이기 때문에 「扁」이란 字를 使用하지 않았을가 假定해서 扁堂을 圖書館의인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하게 된다.

太學에 對한 記錄은 三國史記 高句麗 小獸林王2年 (372)條에 「立太學 教育子弟」라고 되어 있는데 扁堂에 對하여서는 前述한바와 같이 唐書, 舊唐書에 讀書, 誦經이라 되어있다 이것으로 보아 太學은 教育하였고 扁堂에서는 讀書하였다고 解釋할수 있다. 圖書를 各自가 갖기 어려웠던 當時로서는 扁堂은 勿論 太學에서도 이것이 圖書館的인 即 學校圖書館의 일을 하였을 것으로 推測된다.

2) 圖書文化

太學이 設立되던 高句麗 小獸林王2年 (372)은 太學이 設立된 以來에 佛教가 처음으로 들어온 해임으로 우리나라 歷史上 特記할 두가지의 커다란 일 即 學校가 처음으로 設立되었고 佛教가 처음으로 들어오고 同時에 佛書가 들어온 해이다. 三國史記 小獸林王2年6月條에

「秦王符堅遣使及浮屠順道. 送佛像經文」

이라고 佛像과 佛教의 經書가 들어온 事實을 記錄하고 있다. 이로부터 佛法이 弘布하기 始作하였으며 이어서 高名한 僧이 來하고 寺院이 建立되는等 佛教가 차차로 盛하게 되었다. 佛教에 對한 信仰이 두터워짐에 따라 佛教經典이 많아졌으며 寺院에는 經典을 奉하는 곳이 생기게 되었다. 佛教의 盛行은 곧 文化 發展에 크게 影響하였던 것이다. 佛經이 들어오면서부터 漢文學은 急速히 發達하였고 當時文化가 發達한 中國으로 留學하는 數가 늘어가고 한편 中國에서 工夫하고 돌아오는 사람의 數가 늘어감에 따라 佛經以外의 儒書, 曆書, 醫書等的 여러 種類의 圖書가 傳하여졌던 것이다.

三國史記 高句麗 嬰陽王11年 (600)條에 「詔大學博士李文眞. 約古史爲新集五集. 國初始用文學時. 有人記事一百卷. 名曰留記. 至是刪修」

라고 있음을 볼때 撰者는 未詳하나 이미 留記라는 國史가 編纂되어 있었음을 알수 있으며 이를 李文眞이 五卷으로 刪修하였음이 記錄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 中國으로 부터 들어오는 圖書以外에도 高句麗人自身이 著述한 圖書가 있었음을 알수 있다.

高句麗에 流布되고 있었던 圖書는 通典 邊防門東夷 高句麗에 있는 「其國中書籍有五經, 三史, 三國志, 晉陽秋, 玉篇, 字統, 字林」
後周書에 있는 「高句麗有五經三史, 三國志, 晉陽秋」
舊唐書 東夷傳 高句麗에 있는 「其書有五經及史記, 漢書, 范曄後漢書,

三國志, 孫盛晉春秋, 玉篇, 字統, 字林]

北史에 있는

「書有五經三史, 三國志」

等の記錄을 綜合하여 본다면 五經(周易, 書傳, 論語, 春秋, 禮記)等の 儒學圖書를 爲始하여 中國의 歷史圖書인 三史(史記, 漢書, 後漢書) 三國志와 中國文學語學圖書인 字統, 字林, 玉篇, 文選等の 圖書가 있었음을 알수 있다.

3) 典書客

所重한 圖書가 次次로 많아져 감에 따라 文籍을 管掌하는 職官이 생겼다.

東史綱目에 보면 圖表에 「典書客」이란 職이 있었다고 하며

增補文獻備考 職官考에 보면

「又有國子博士大學士舍人通事典書客皆小兒以上爲之」

라고만 있어 典書客의 官位가 小兒以上이라고만 알수있을뿐 文籍을 掌하였다는 以上の 具體的인 것을 알수없다. 中國에는 尊閣이 宮中에 있었으며 圖書를 管掌하는 職官으로 秘書監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中國의 尊閣과 같이 宮中에 圖書를 保管하는 곳이 있었을 것이며 典書客은 宮中에서 圖書의 保管과 文書等の 保管管理를 兼하여 掌하던 職官이 많았던가 한다.

第二節 百濟

1) 圖書文化

舊唐書 東夷傳 百濟에

「……其書籍有五經子史」라고 있고

隋書 東夷傳 百濟에

「…讀書史…」라고 있고

周書에도 「俗에 騎射를 所重히 여기고 兼하여 墳史(經史)를 사랑한다. 그 秀異한 것은 文을 잘 解하고 且屬한다. 또 陰陽

五行을 解하고 宋의 元嘉曆을 써서 建寅의 月로서 歲首로한다. 또 醫藥, 卜筮·占相의 術을 解하고 投壺, 樗蒲等の 雜戲가 있으나 더욱 奕碁를 崇尚한다. 僧尼·寺塔이 매우 많고 道士는 없다. 賦税는 布·絹·絲·麻 및 米로서 하고 歲의 豊儉을 해아려 差等을 배풀어서 이를 輸한다」라고 記錄되어 있는바 百濟는 佛敎가 甚히 盛하였음에 비추어 佛經典以外에도 所謂 經史子의 圖書가 많이 있어 國民이 이것들을 즐기어 읽었음을 알수 있다.

增補文獻備考藝文考에

「百濟書記卷帙未攷百濟自開國以來未有文字記事至近肖古王二十九年得博士高興始有書記」라고 있는바 近肖古王29年(374)에 이미 書記라는 史記가 이루어졌던 것을 알수 있다.

2) 百濟文化和 日本文化

日本은 地理的으로 百濟와 가까웠고 日本은 半島南部에 있던 加羅(任那)를 根據로 하여 百濟文化를 많이 輸入하였다.

北史 倭國傳에

「敬佛法, 於百濟求得佛經」이라고 있고

隋書 東夷傳 倭國에

「於百濟求得佛經」이라고 있다.

百濟가 日本에 佛經을 보내기에 앞서 古爾王51年(284) 博士 王仁이 論語와 千字文을 日本에 가지고 가서 日本에 漢文字를 傳한 以後 惠聰을 비롯한 高名한 僧이 日本에 가서 佛敎를 宣敎하였던 것이니 日本이 자랑하는 飛鳥時代의 文化는 곧 百濟文化의 延長인 것이다.

第三節 新羅

1) 祿宮, 珍閣省

新羅에는 어느때부터인지는 몰라도 祿宮이라는 王宮文庫가 있었고 이것이 珍閣

省이라 改稱되었다.

三國史記 新羅本紀 文聖王17年(855)12
월에 珍閣省에 火災가 있었다는 記錄이
있고

東史綱目 圖 新羅에

「穢宮 改 珍閣省」이라고 있고

東史綱目 圖 高麗에

「珍閣省 麗初有之有令卿」이라고 있고

高麗史 百宮에

「太祖6年 內京府于珍閣省」이라 있다

珍閣省은 高麗時代 秘閣, 寶文閣, 御書
籍所等等으로 稱한때 까지 珍閣省은 王宮
文庫의 稱號라고 하겠다.

유네스코 韓國委員會에서 編한 Korea
Survey에서는 典彩署를 8世紀初葉의 圖
書管理施設이라 하였고(辛兌鉉著 新羅職
官및 軍制의 研究, (新興大學校論文集2卷))
에 보면

(三二) 彩典(典彩署)

「景德王때 典彩署라 改稱하였다가 後에 다
시 復舊하였다. 彩色에 關한 事務를 管掌
하였을 것이며……」라고 하였다. 그러나
三國史記 職官考에 依하면 典彩署는 圖籍
을 管掌한 官署라고 있는바 圖籍이라 함을
諸橋徹次著 大漢和辭典과 中國의 辭源等
의 辭典에 依하면 圖籍은 土地의 圖面과
國民의 戶籍과 財産을 記錄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彩色는 記錄文書を 말하고 典은
官署라는 뜻이 있는바 前記한 彩色을 管掌
한다던가 圖書를 管理하는 官署가 아니고
現在의 登記所와 같은 그러한 官署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2) 圖書文化

新羅의 文化는 佛教를 中心으로 해서
甚히 發達하였다. 偉大한 建築物과 彫刻
을 비롯하여 많은 藝術品이 아직 남아 있

으며 元曉大師의 많은 著書도 遺存하고 있
다. 唐과의 外交가 甚하여 來往하는 使者들
이 佛經을 爲始하여 天文, 醫書等의 圖書
를 唐으로부터 大量으로 드려왔던 것이다.

三國史記 新羅本紀 景文王9年(869)7月
에는 唐으로가는 學生李同等에게 銀三百兩
을 주고 圖書를 사오도록 한 것 등은 文化輸
入과 아울러 圖書文化向上을 爲하여 政府
로서도 極히 努力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新羅역시 高句麗나 百濟와 같이 新羅眞
興王6年(545) 大阿湫居渠夫等에 命하여
國史를 修撰케 하였더니 우리나라는 일
찍부터 國史를 編撰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第四節 渤海摩震

1) 文籍院

渤海는 唐의 制度和 文化를 輸入하기에
너무 過度하였다(張道斌著 大韓歷史)고
말하고 있다. 渤海에는 唐의 制度를 模倣
하여 文籍院이 있었고 文籍院에는 監一令
一小監一小舍이 있었다는 外에 더 알 길이
없다. 渤海는 文物制度和 文化가 甚히 發
達하였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文籍院은 圖
書의 出版과 아울러 圖書의 保管및 文書의
保管等を 管掌한 官署가 豈인가 한다.

2) 禁書省

摩震은 弓裔이 設立한 國家로서 17年間
存立하였다.

增補文獻備考 職官考에 보면 弓裔가 禁
書省을 두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校書館條
에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禁書省(또는 秘書
省)은 圖書의 出版을 管掌한 官署임을 알
수 있으며 校書館條의 最初로 나오는 것으
로 보아 圖書의 出版을 管掌하는 國家機關
으로는 이것이 最初라고 하겠으며 摩震時
代에는 國內에서 圖書의 生産이 盛하였던
것이 알 수 있다. (筆者 外大司書長)